

崔仁鉉*
具成烈**
金秀鳳***

勞動供給要因과 人口移動

目	I. 序論
次	II. 雇傭機會의 構造的 變化
次	III. 勞動供給要因으로서의 人口移動
次	IV. 結論

I. 序論

人口移動의 要因은 職業移動과 居住移動으로 大別될 수 있다. 물론 居住移動과 職業移動相互間에 必然的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職業移動이 農家와 非農家間의 移動으로 定義된다면 兩要人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大部分의 開發途上國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理論的으로 產業化가 完全히 이루어지지 않은 國家에서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農家와 非農家間의 人口移動이 必然的인 過程이라는 意見을 같이하고 있으나, 人口移動體系에 관한 見解는 經濟學者들 間에 多少 差異를 보이고 있다. 「레위스」(Lewis, W. A., 1954)¹⁾는 低開發國家의 農業部門에 無限한 勞動供給이 存在한다고 보고, 產業化가 進行됨에 따라 漸進的으로 이 풍부한 勞動力이 農業部門에서 非農業部門으로 移動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觀點에서 「라니스」와 「费이」(Ranis, G., Fei, J. C. E., 1961)²⁾는 經濟發展에 따라 農業從事者들이 漸次 工業部門으로 흡수되고, 이에 附隨的으로 剩餘農產物이 發生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조르겐슨」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員.

- 1) W. 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vol. 22, May, 1954, pp. 139~191.
- 2) G. Ranis and J. C. E. Fei,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1961, pp. 535~561.

(Jorgenson, Dale, 1969)³⁾과 같은 部類의 學者들은 非農業部門을 두 部門(現代的 部門과 傳統的 部門)으로 구분하고, 農家와 非農家間의 人口移動을 두 단계로 把握하고 있다. 즉 人口移動은 農家로부터 傳統的 部門을 경유하여 現代的 部門으로 進行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非農業部門을 都市地域으로 看做하고, 現代的 都市部門에 취업을 희망하는 不完全雇傭者 들이 傳統的 都市部門으로 모여드는 것을 都市化로 定義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로」(Todaro, M. P. 1980)⁴⁾와 「샤스타」(Sjaastad, L. A., 1962)⁵⁾와 같은 人的 資本理論家들은 低開發國家의 農村과 都市間의 人口移動要因을 地域間 經濟的 機會分布의 差異 또는 就業勞動者들의 平均賃金과 就業率로 표시되는 期待所得水準의 差異로 說明하고 있다.

이와같은 論難은 人口移動이 居住를 위한 것인가 또는 職業을 위한 것인가의 差異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人口移動의 原因은 工業部門의 勞動需要가 農業部門보다 相對的으로 增加하기 때문이라는 데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같은 見解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Suits, D. B., 1985).⁶⁾ 經濟發展에 따라 農業과 工業 兩部門의 勞動生產性增加는 勞動需要를 減少시킨다. 그러나 工產品의 所得彈力性이 農產品의 所得彈力性보다 相對的으로 크기 때문에, 工業部門보다는 農業部門의 勞動需要의 減少程度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發展은 相對的으로 大量의 勞動力의 需要가 工業部門에서 要求되고, 이에 따라 農家와 非農家間의 人口移動이 發生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近代化過程에 나타난 人口移動形態는 典型的인 例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經濟發展戰略은 勞動集約의 輕工業產業 위주로 着手되었으며, 이같은 樣相은 勞動者들이 보다 쉽게 接近할 수 있고, 보다 便利한 經營施設을 갖추고 있는 都市周圍에 大規模의 雇傭機會를 創出하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農業部門은 相對的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農業部門의 最優先政策은 主要農產物 (쌀)의 自給自足에 두고 價格維持政策, 高收穫品種開發, 灌溉施設 · 耕作方式의 改善 等을 通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農產物의 需要是 嗜好

3) Dale Jorgenson,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Classical vs. Neo-Classical Models of Growth" and "Comments" in C. Wharton ed., *Subsistence Agri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1969.

4) M. P. Todaro,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A Survey" in R. A. Easterlin ed.,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1980.

5) L. A. Sjaastad, "The Cost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No. 5, 1962.

6) D. B. Suits, "U. S. Farm Migration:An Application of the Harris-Todaro Model",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3, No. 4, 1985.

變化등으로 供給側面의 成長趨勢보다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農產物의 需要(특히 主穀類의 需要)는 상당히 중요한 役割을 한다. 즉 農產物에 對한 需要와 供給의 時差로 因해 農業部門이 成長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以上을 要約하면 農業과 工業兩部門의 不均等한 發展過程은 農村(農家)으로부터 都市(非農家)로 過多한 人口流出을 유도하는 結果를 낳았다.

본 論文의 目的은 다음과 같은 問題에 對한 解答을 題示하여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첫째, 最近에 나타난 雇傭機會의 構造的(產業別) 變化는 어떠한가?

둘째, 人口移動이 雇傭機會의 構造的 變化와 어떠한 關係를 갖는가?

세째, 勞動供給要因으로서 人口移動의 役割이 얼마나 重要한가?

研究資料로는 約 9,300家口 標本調查로 作成된 「1983年 人口移動 特別調查」를 利用하였다.⁷⁾ 이 調查報告書는 家口와 14歲~65歲의 個人에 對한 情報를 提供하고 있으며, 본 研究에 使用된 資料는 個人別 人口移動史(居住와 職業에 관한 事項)이다.

II. 雇傭機會의 構造的 變化

1. 雇傭機會의 成長趨勢

雇傭成長率(\widetilde{L})은 GNP成長率(\widetilde{Y})과 勞動生產性의 成長率(\widetilde{y})의 差로써 定義될 수 있다. 즉,

$$(1) \widetilde{L} = \widetilde{Y} - \widetilde{y}$$

〈표 1〉은 1965年 以後, 總生產·雇傭·勞動生產性의 成長趨勢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GNP成長率은 1960年代 後半 12.8퍼센트에서 1980年代 初에는 7.6퍼센트로 漸次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勞動生產性의 成長率 또한一般的으로 減少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1970年 以後 勞動生產性의 成長率은 5.3퍼센트~5.9퍼센트 사이에서 停滯되어 있기 때문에, 雇傭成長率은 式(1)로부터 減少하는 趨勢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最近 들어 GNP에 대한 雇傭의 彈力性 ($= \frac{\partial Y}{Y} \cdot \frac{L}{\partial L}$)이 從前보다 점점 작아지는 傾向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產業別 趨勢를 고찰해 보면, 1970年代 中半까지 製造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 以下 SOC: Social Overhead Capital)部門의 雇傭成長率은 높았으나, 그 以後에는 서비스 產業(以下 SVC:

7) Ehn Hyun Choe, et. al., "Preliminary Report of Korean National Migration Survey" in E. H. Choe et. al., ed.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1986.

Table 1. Annual* Growth of Output, Employment and Labor Productivity

年間 總生産, 雇傭 및 勞動生産性의 成長率

	1965~70				1970~75				1975~80				1980~83			
	\bar{Y}	\bar{y}	\bar{L}	\bar{Y}	\bar{y}	\bar{L}	\bar{L}^*	\bar{Y}	\bar{y}	\bar{L}	\bar{L}^*	\bar{Y}	\bar{y}	\bar{L}	\bar{L}^*	
All	12.8	9.1	3.7	10.2	5.9	4.3	-	8.5	5.3	3.2	-	7.6	5.6	2.0	-	
I	3.2	2.8	0.4	5.4	3.3	2.1	-	-3.0	-0.2	-2.8	-	12.6	15.1	-2.5	-	
II	28.8	15.9	12.9	23.5	11.0	12.5	15.7	16.5	9.2	7.3	7.9	7.8	4.7	3.1	12.5	
SOC	38.8	-20.5	59.3	13.6	9.8	3.8	10.8	17.3	6.2	11.1	12.0	10.4	5.9	4.5	8.9	
SVC	13.7	11.3	2.4	7.4	3.2	4.2	8.4	7.6	-0.5	8.1	11.3	4.2	-0.8	5.0	11.8	

*derived as the annual average of percentage growth rate over 5 year period.

Source: EPB, Major Economic Indicators of the Korean Economy,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age Survey

Service) 部門이 製造業部門보다 높은 雇傭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年代 들어 SVC部門이 SOC部門보다 높은 雇傭成長率을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農業部門은 觀察期間동안 相對的으로 雇傭成長率이 減少하고 있으며, 1970年代 中半 以後부터는 絶對的으로 減少하고 있다.

雇傭(量)의 成長率이 減少하고 있다는 사실은 (i) 生產函數에서 非勞動要因의 重要性이 增加하고 있으며 (ii) 勞動의 量보다 質의 重要性이 增加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雇傭機會의 構造的 變化를 分析하기 위해 實效勞動要素(또는 單位勞動의 有效性) L_i^* 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자.

$$(2) L_i^* = L_i \cdot W_i$$

여기서 W_i 는 i产业의 勞動生産性 또는 效率性을 나타낸다. 그러면,

$$(3) \tilde{L}_i^* = \tilde{L}_i + \tilde{W}_i ('\sim' 는 成長率)로 표시될 수 있다.$$

〈表 1〉에는 1970年代 以後 農業部門을 제외한 產業別 實效勞動要素의 成長率(\tilde{L}_i^*)이 5年單位로 표시되어 있다. \tilde{W}_i 는 各 產業의 實質月賃金所得으로 推定된 成長率이다. 月賃金所得은 雇傭日數와 雇傭時間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염밀한 의미의 生産性 指標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본 研究에 必要한 雇傭機會 또는 勞動集約度의 尺度로써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一般的으로 觀察對象期間동안 實效勞動要素의 成長率(\tilde{L}^*)의 趨勢는 雇傭成長率(\tilde{L})보다 크고, 1980年代부터는 그 差異가 더욱 큰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教育水準의 持續的인 增加에 따라 勞動力의 質이 向上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勞動의 質에 대한 實質

賃金이 增加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最近 雇傭趨勢는 量보다는 質이 더욱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2. 雇傭機會의 成長에 따른 構造的 變化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1980年代를 勞動要素의 重要性이 量에서 質로 移行하는 時期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動因을 보다 正確히 分析하기 위해 實效勞動要素의 成長趨勢를 推定 可能한 要素로 구분하여 보자.

i 產業의 實效勞動要素 (L_i^*) 가 각기 다른 質의 要素 (k) 들로 構成된다면, 成長率 (\tilde{L}_i^*) 과 微分成長率 ($d\tilde{L}_i^*$) 은 다음과 같이 각각 표시된다.

$$(4) L_i^* = \sum_k L_{ki} \cdot W_{ki}$$

$$(5) \tilde{L}_i^* = \sum_k B_{ki} (\tilde{L}_{ki} + \tilde{W}_{ki})$$

$$(6) d\tilde{L}_i^* = \sum_k dB_{ki} \cdot \tilde{L}_{ki}^* + \sum_k B_{ki} \cdot d\tilde{L}_{ki} + \sum_k B_{ki} \cdot d\tilde{W}_{ki}$$

여기서 k는 人口學的 特性値로써 性과 教育水準 등을 표시하고, $B_{ki} = L_{ki}^*/L_i^*$ 를 의미한다.

式 (6)은 實效勞動要素의 微分成長率이 雇傭의 人口的 構成(性·教育水準) 變化, 雇傭成長率의 變化, 그리고 勞動生產性⁸⁾의 成長率變化로 構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表 2〉는 1970年 以後 實效勞動要素의 成長率變化를 要因別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量的인 雇傭成長要因이 1970年代의 雇傭機會의 成長을 加速화하는데 主導的 役割을 하였지만, 最近에 와서는 오히려 障碍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雇傭의 生產性要因과 構成要因은 最近 雇傭機會의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즉 最近에 나타난 雇傭機會의 成長機會의 成長趨勢는 量的 要因으로부터 質的 要因과 構成要因으로 移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各 要因別로 細分하여 調査해 보면, 最近 3次產業(SOC와 SVC部門)의 雇傭(量)成長이 陽(+)에서 陰(-)으로 變化됨에 따라, 雇傭成長要因은 雇傭機會의 成長을 鈍化시키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生產性 成長要因은 同一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1970年代에는 陰(-)이었으나 最近들어 陽(+)으로 變化됨에 따라 雇傭機會의 成長을 加速시키고 있다. 한편 雇傭構成要因은 非農業部門(特히 製造業)에서 雇傭機會의 成長을 增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은 性·教育水準別로 雇傭構成要因을 細分化한 것으로, 이 表에 의하면 SOC部門을 제

8) 임금을보다는 근무시간의 변이가 거의 불변이므로 월수입 (W_{ki}) 을 생산성의 지표로 사용한다.

Table 2. Decomposition of the Change in L_i^* over Different Time Period
 實效勞動要素의 成長率(\widetilde{L}_i^*) 變化의 成分

(1) Between earlier and latter Half of 1970s

	a	(1) Employment Composition	(2) Employment Growth	(3) Employment Intensity	Total
II	23.4	1.18	-6.19	-2.79	-7.80
SOC	14.6	0.21	6.79	-5.91	1.09
SVC	39.2	0.41	3.37	-0.95	2.83
Total	77.2	0.47	0.86	-1.89	-0.56

(2) Between the latter 1970s and early 1980s

II	28.6	1.26	-1.97	5.32	4.61
SOC	17.4	0.66	-5.84	2.15	-3.03
SVC	36.9	0.69	-4.56	4.40	0.53
Total	82.9	0.73	-3.26	3.52	0.99

Note: a = industrial share(%) in GNP

$$(1) = \sum_k dB_{ki} \cdot \widetilde{L}_{ki}^*$$

$$(2) = \sum_k B_{ki} \cdot d\widetilde{L}_{ki}$$

$$(3) = \sum_k B_{ki} \cdot d\widetilde{W}_{ki}$$

Unclassified or unknown category was included in service industry.

Source: L_i and L_{ki} : EAP Survey, 1983 Employment Survey and Population Census.

W_{ki} : Wage Survey.

외한 모든 產業의 勤勞者들이 女性化하는 傾向이 있으며, 특히 SVC部門에서 이와 같은 現象이 더욱 뚜렷하다. 또한 性에 구별없이 모든 產業에서 高學力化 趨勢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現象은 男子勤勞者의 경우에는 製造業과 SOC部門, 그리고 女子勤勞者의 경우에는 SVC部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III. 勤勞供給要因으로서의 人口移動

II章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i) 雇傭量의 成長率은 계속 減少하고 있으며 (ii) 雇傭生產性 (質 또는 集約度)의 成長率은 增加하고 있다. 한편 (iii) 雇傭構成은 더욱 女性化, 高學力化되어 가

Table 3. Differential in \bar{L}_i^* due to Change in Employment Composition

雇庸構成 變化에 따른 實效勞動要素의 微分成長率

	Between earlier and latter 1970s			Between latter 1970s and early 1980s		
	II	SOC	SVC	II	SOC	SVC
Male	0.49	0.00	-0.01	0.51	0.62	-0.10
Primary	-0.23	-0.25	-0.11	-0.00	-0.18	-0.05
Secondary	0.70	0.32	0.15	0.52	0.85	0.02
College	0.02	-0.07	-0.05	-0.01	-0.05	-0.07
Female	0.69	0.21	0.42	0.75	0.04	0.79
Primary	-0.14	0.05	-0.08	0.80	-0.01	-0.08
Secondary	0.83	0.16	0.37	-0.06	0.03	0.62
College	0.00	0.00	0.13	0.01	0.02	0.25
Total	1.18	0.21	0.41	1.26	0.66	0.69

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본 章에서는 移動者들의 地域間移動과 職業移動이 雇傭機會의 構造의 變化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1. 人口移動과 雇傭機會

〈表 4〉는 1983年「人口移動 特別調査」에 나타난 年齡·性·教育水準別 人口移動率을 제시하고 있다.⁹⁾ 人口移動의 選別性(Selectivity)은 一般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이와 教育水準에 따라 維持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農村地域의 轉出率은 女子가 男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一般的으로 人口移動率은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最近 男子의 경우 農村地域의 純轉出率은 大學教育을 받은 젊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減少하고 있다. 한편 女子의 人口移動率은 最近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80年代 들어 젊은 女性層의 農村地域 純轉出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⁰⁾ 즉 高學力化, 女性化되어가는 雇傭機會의 構成變化가 最近의 人口移動趨勢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人口移動이 雇傭機會와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이를 明確히 分析해 보

9) 이동율 비교를 위해 조사대상 기간의 첫해에 15~50세에 속한 연령만을 대상으로 한다.

10) 1980~83의 이동율은 1년 6개월 동안의 이동율이므로 정확한 비교의 근거는 될 수 없다.

Table 4. Out-Migration Rates for Age·Sex·Education Specific Groups

年齢·性·教育水準別 轉出率

(unit:%)

		1980~83			1975~79			1970~74			
		Rural Net	Gross	Urban Gross	Rural Net	Gross	Urban Gross	Rural Net	Gross	Urban Gross	
Male	Young (15~29)	Primary	2.8	25.0	43.9	18.9	24.6	31.1	15.9	25.4	33.9
	Old (30~49)	Secondary	14.0	29.7	47.6	34.5	41.1	51.2	31.6	35.8	41.1
	College	19.0	28.6	55.1	14.8	18.5	50.0	21.1	26.3	51.9	
	Total	13.1	28.7	49.4	28.1	34.1	48.7	26.2	31.8	43.1	
	Young (15~29)	Primary	2.9	8.1	13.0	4.4	9.8	13.7	0.6	6.8	11.1
	Old (30~49)	Secondary	4.2	13.1	21.4	9.2	12.8	10.8	10.2	11.2	12.0
	College	-1.6	3.2	23.2	11.3	17.0	14.2	2.8	5.6	11.4	
	Total	2.2	8.7	20.0	7.2	11.9	12.4	3.9	8.1	11.5	
Female	Young (15~29)	Primary	23.5	38.0	37.8	26.8	37.5	31.5	24.0	38.9	18.4
	Old (30~49)	Secondary	33.4	42.3	35.2	31.8	38.2	33.6	31.5	40.1	33.3
	College	22.2	29.6	36.9	15.3	18.6	25.5	-2.8	2.8	26.5	
	Total	30.2	40.3	35.9	28.3	35.6	32.8	26.7	37.9	31.3	
	Young (15~29)	Primary	5.4	7.9	10.4	8.4	12.3	11.8	5.5	7.4	8.7
	Old (30~49)	Secondary	0.7	7.9	14.0	2.3	5.7	13.8	11.9	14.3	14.3
	College	0.0	0.0	11.9	0.0	0.0	17.2	0.0	0.0	19.2	
	Total	3.7	7.5	12.2	7.0	10.7	12.9	6.1	8.1	10.3	

기 위해 人口移動函數를 다음과 같이 定義해 보자.

$$M = b_0 + b_1 \widetilde{L} + b_2 \widetilde{W} + d_1 F + d_2 E$$

여기서 M : 性 教育水準別 轉出率

 \widetilde{L} : 5 年 單位로 推定된 SVC部門의 雇傭 成長率¹¹⁾ \widetilde{W} : 5 年單位로 推定된 SVC部門의 賃金成長率

F : 性(女子)을 나타내는 「더미」(dummy) 變數

E : 學力(大學教育)을 나타내는 「더미」(dummy) 變數를 각각 表示한다.

11) 서비스 산업부문을 택한 이유는 다른 부문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表 5〉는 人口移動函數의 推定結果로써, 轉出率은 雇傭機會의 成長率(즉 \tilde{L} 와 \tilde{W})과 統計的으로 有意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農村地域의 人口移動者들과 比較해 볼 때, 都市의 移動者들은 雇傭成長率(\tilde{L}) 보다는 相對的으로 賃金成長率(\tilde{W})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農村·都市地域 모두 總移動者들은 雇傭成長率(\tilde{L}) 보다는 賃金成長率(\tilde{W})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Table 5. Estimated Coefficients of Migration Equation
人口移動函數의 推定係數

	Rural Outmigration		Urban Outmigration
	Net	Gross	Gross
Constant	10.85*	16.7** (3.39)	22.34** (4.36)
\tilde{L}	1.21** (3.29)	1.19** (3.06)	1.01* (2.49)
\tilde{W}	0.951 (1.22)	1.76* (2.13)	2.65** (3.09)
F	-3.65 (0.83)	-4.11 (0.88)	-16.0** (3.31)
E	-13.2** (3.12)	-15.7** (3.50)	3.37 (0.72)
R ²	0.556	0.570	0.605
N	18	18	18

* significant at 5% level

** significant at 1% level

2. 人口移動과 勞動供給

〈表 6〉은 移動者와 非移動者의 經濟的 活動狀態를 比較해 본 것으로, 一般的으로 移動者들이 非移動者들보다 높은 勞動參與率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經濟活動人口 중, 젊은층 (18~33歳)의 移動者들은 非移動者들보다 失業率이 낮은 반면, 長年層(33~50歳)의 失業率은 移動者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長年層의 경우, 非移動者들에 비해 相對的으로 많은 移動者들이 勞動市場에서 은퇴하거나 求職을 포기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한편 被雇傭

12) 40세 이상인 이동자들은 제외된다.

Table 6. Activity Status of Migrants* and Nonmigrants
移動者와 非移動者들의 經濟活動狀態

	Male				Female				Total			
	Migrants		Nonmigrants		Migrants		Nonmigrants		Migrants		Nonmigrants	
	Rural	Other	Total	Total	Rural	Other	Total	Total	Rural	Other	Total	Total
(18~33 years)	Urban	Urban			Urban	Urban			Urban	Urban		
Employee	51.3	51.3	51.3	44.0	29.2	22.5	24.5	20.7	36.0	36.6	29.6	36.4
Own Manager	9.4	12.5	12.0	17.5	3.8	3.9	3.9	5.5	5.5	8.1	10.1	7.5
Employer	1.7	2.3	2.2	1.8	—	0.5	0.4	0.6	0.5	1.4	1.0	1.2
Unpaid Workers	—	4.6	3.8	5.3	1.9	3.5	3.0	3.3	1.3	4.0	4.0	3.4
Unemployed (seeking job)	5.1	7.0	6.7	7.2	1.9	2.9	2.6	3.4	2.9	4.9	4.8	4.4
Unemployed (not seeking job)	0.9	1.1	1.0	3.6	1.9	2.0	2.0	2.6	1.6	1.6	3.0	1.6
Students	28.2	15.6	17.8	19.0	7.6	4.6	5.5	6.9	13.9	10.0	11.5	11.0
Housewives, etc.	3.4	5.6	5.2	1.6	53.8	60.1	58.2	57.1	38.3	33.5	35.9	34.7
Sample Size	117	569			264	592						
(33~53 years)												
Employee	59.2	54.4	56.3	44.4	23.5	17.4	18.5	11.0	43.3	37.3	38.2	24.5
Own Manager	23.1	26.1	25.7	40.8	8.8	12.9	12.2	15.0	15.0	20.0	19.2	25.4
Employer	—	4.4	3.9	6.8	—	0.6	0.5	1.3	—	2.7	2.3	3.5
Unpaid Workers	—	0.6	0.5	0.6	8.8	5.8	6.3	8.4	5.0	3.0	3.3	5.3
Unemployed (seeking job)	7.7	10.0	9.7	3.8	—	0.6	0.5	0.2	3.3	5.7	5.3	1.7
Unemployed (not seeking job)	—	1.7	1.5	1.1	—	0.6	0.5	0.2	—	1.2	1.0	0.6
Students	—	0.6	0.5	0.3	—	—	—	0.1	—	0.3	0.3	0.2
Housewives, etc.	—	2.2	1.9	2.3	58.8	61.9	61.4	63.8	33.3	29.9	30.4	39.0
Sample Size	26	180			34	155						

* Migrants in the 1980~83 period.

者들 중에서 相對的으로 많은 移動者들이 雇傭 自體에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農村에서 都市로 移動한 장년층의 경우에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많다.

Table 7. Industrial Composition of Employment by Migration* Status

移動狀態에 따른 고용의 產業別 構成

Age	Male				Female				Total			
	Migration		Nonmi-		Migration		Nonmi-		Migration		Nonmi-	
	Rural	Other	Total	Total	Rural	Other	Total	Total	Rural	Other	Total	Total
(18~33 years)												
Agriculture	5.1	8.8	8.2	10.2	1.1	1.7	1.5	2.1	2.4	5.2	4.5	5.2
Manufacturing	64.1	55.5	57.0	53.2	80.3	77.5	78.4	80.3	75.3	66.8	68.9	70.0
SOC	10.3	12.1	11.8	11.4	1.9	0.7	1.1	1.4	4.5	6.3	5.8	5.2
Service	19.7	23.0	22.4	24.7	16.7	20.1	19.0	16.2	17.6	21.4	20.6	19.4
Sample Size	117	569			264	592						
(33~53 years)												
Agriculture	-	9.4	8.3	20.3	8.8	3.2	4.2	9.9	5.0	6.6	6.3	14.1
Manufacturing	34.6	37.8	37.4	24.4	67.6	69.0	68.8	69.0	53.3	52.2	52.4	51.0
SOC	15.4	16.1	16.0	17.4	-	1.9	1.6	1.0	6.7	9.6	9.1	7.6
Service	50.0	36.1	37.9	37.8	23.5	25.8	25.4	20.0	35.0	31.3	31.9	27.2
Sample Size	26	180			34	155						

* Migration during the 1980~83 period.

人口移動의 勞動供給과 需要의 仲介役割을 修行하고 있는가를 考察해 보기에 앞서 移動狀態에 따른 產業別 雇傭構成을 比較해 보면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非移動者들에 비해 相對的으로 많은 移動者(특히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者)들이 非農業部門에 從事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男子移動者는 製造業部門,¹³⁾ 女子移動子는 SVC部門에 集中되어 있다. 또한 移動者들이 移動者들에 비해 經濟的으로 보다 活動的이고 雇傭機會의 變化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移動者들의 性向은 勞動供給의 效率性을 增大시키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移動者들의 經濟活動狀態와 職業(產業)은 人口移動을 通해 어떻게 變化하고 있는가? 또한 이 變化는 現在 經濟發展의 方向 또는 最近의 產業構造變化와 一致하는가? 이에 대한 部分的인 對答은 1983年「人口移動特別調查」의 個人別 人口移動史(15~50歲)를 根據로 作成된 〈表 8〉과 〈表 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3) 나이가 많은층은 SVC 부문의 종사율이 높다.

〈表 8〉은 移動者들의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流動比趨勢를 보여 주고 있다. 表에 나타난 重要한 特徵은 첫째,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流動比가 漸次 減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雇傭者들의 經濟活動狀態 變化率을 표시하는 eu(雇傭→實業) 와 en(雇傭→非活動) 은 ue(失業→雇傭) 와 un(失業→非活動), 그리고 ne(非活動→雇傭) 와 nu(非活動→失業) 등과 마찬

Table 8. Flow Ratios for Migrants' Activity Status

移動者들의 活動狀態에 대한 流動比

	eu	en	ue	un	ne	nu	Flow Rates(%)	Partici	Unempl-	Sample						
								pation	oyment	Size						
Rural-Urban																
Migrants																
Male	80~83	4.0	3.0	50.0*	0.0*	7.5	7.5	74.1	6.3	143						
	75~79	4.5	1.5	85.7*	0.0*	90.3	6.9	98.2	5.9	220						
	70~74	5.4	3.3	87.5*	0.0*	93.7	5.1	97.8	5.6	179						
	65~69	6.7	7.8	100.0*	0.0*	94.5	4.4	95.7	5.4	186						
Female	80~83	1.0	14.1	23.1*	30.8*	10.2	1.6	35.6	3.4	298						
	75~79	2.7	56.8	25.0*	68.8*	17.2	1.8	27.1	2.3	354						
	70~74	0.0	66.7	30.0*	65.0*	27.6	0.6	30.3	0.7	271						
	65~69	-	46.2	25.0*	75.0*	23.9	0.7	30.8	0.5	185						
Other Migrants																
Male	80~83	2.2	2.6	34.2	1.3	16.1	2.9	83.2	8.9	750						
	75~79	5.9	1.2	73.3	13.3	70.3	10.8	92.0	8.0	564						
	70~74	6.7	1.7	82.4*	11.8*	92.8	3.3	97.1	5.4	407						
	65~69	6.2	1.9	83.3*	16.7*	86.2	10.8	97.0	7.9	304						
Female	80~83	1.8	8.7	28.2	17.9	6.9	1.2	36.2	4.1	751						
	75~79	2.8	41.0	20.0	73.3	14.9	1.0	28.9	1.8	612						
	70~74	1.7	52.9	11.1	83.3	21.3	0.6	27.9	1.3	477						
	65~69	0.0	50.0	33.3	62.5	23.9	0.5	31.7	0.7	303						

* Sample size<20

e=employment u=unemployment n=non-active

Note:eu denotes change from e to u

가지로 量的으로 減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最近에 와서 人口移動을 通한 雇傭機會參與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 失業者들과 非活動者들의 雇傭機會參與可能性을 표시하는 ue와 ne의 減少 趨勢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둘째, 失業率은 계속增加하고 있다. 이것은 移動者들의 經濟活動狀態에 대한 流動比와 人口移動을 通한 雇傭參與可能性의 減少에 따른 必然的 結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原因은 勞動市場에 進入하는 新參(與)者의 失業이增加하는 趨勢에 있기 때문이며, 그 證據로는 nu의 增加傾向으로 說明될 수 있다. 한편 eu는 명백히 감소하고 있어 最近 職業移轉率이 減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Inter-Industry Flow Ratios for Migrants
移動者들의 產業間 流動比

	I - II	I - III	II - I	II - III	III - I	III - II
Rural-Urban Migrants						
Male	80~83	25.0*	0.0*	0.0	7.2	0.0
	75~79	25.0*	0.0*	13.1	29.2	7.8
	70~74	0.0*	0.0*	15.9	45.2	0.0
	65~69	14.3*	14.3*	17.6	56.0	5.5
Female	80~83	0.0*	0.0*	0.8	6.8	0.0
	75~79	20.0*	0.0*	0.3	12.3	2.5
	70~74	33.3*	33.3*	2.1	14.5	2.7
	65~69	0.0*	25.0*	1.9	17.9	10.5*
Other Migrants						
Male	80~83	4.6	1.5	1.0	6.3	0.7
	75~79	3.7	11.1	3.7	34.9	1.7
	70~74	5.1	17.9	3.0	48.5	0.0
	65~69	9.7	9.7	3.2	49.7	3.5
Female	80~83	7.1*	0.0*	0.3	6.4	0.0
	75~79	5.0	5.0	0.8	11.7	0.0
	70~74	29.6	3.7	1.6	14.8	1.6
	65~69	19.0	4.8	4.0	17.4	0.0

* Sample size<20

Note: I = primary industry II = secondary industry III = tertiary industry

〈表 9〉는 移動者들의 產業間 流動比 趨勢를 보여 주고 있는데, 一般的으로 農業部門은 移動者들을 放出하고 있으며, 非農業部門은 移動者들을 吸收하고 있다. 量的의 側面에서 男子移動者들의 移動方向은 Ⅱ→Ⅲ, Ⅲ→Ⅱ 순으로 Ⅱ次產業과 Ⅲ次產業間의 移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Ⅲ次產業은 男子移動者들은 收容하는 主要產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傾向은 1980年代 들어 反轉되어 오히려 Ⅱ次產業이 男子移動者들을 吸收하고 있다. 女子移動者들의 경우 產業間 人口移動의 趋勢는 最近까지도 Ⅲ→Ⅱ, Ⅱ→Ⅲ 순으로 나타났으며, Ⅱ次產業이 여전히 女子移動者들을 吸收하는 主要產業이었다. 그러나 그 比率은 男子들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1980年代 들어 漸次 減少하고 있다.

IV. 結論

人口移動은 人的 資源의 再分配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經濟的 流量變數는 보다 좋은 條件을 갖고 있는 機會를 向해 움직이기 때문에, 人口移動은 人的 資源 利用의 效率性을 增加시킨다. 본 論文은 最近에 나타나고 있는 雇傭機會의 構造的 變化와 이에 隨伴되는 人口移動의 敏感性을 把握해 보고, 營勞供給要因으로서의 人口移動의 役割을 考察해 보기 위해서 시도된 것이다.

1970年代 以後, 農業部門의 雇傭機會는 絶對的으로 뿐만 아니라 相對的으로 減少하고 있다. 非農業部門에 나타난 雇傭機會의 構造的 變化를 요약하면, 雇傭의 量的 成長率은 1980年以後 減少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雇傭의 質的 側面 (實質賃金增加)과 構造的 側面 (高學力化와 女性化)은 雇傭機會의 成長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分析結果에 따르면 高學力化 傾向은 男子勤勞者の 경우 製造業과 SOC部門에서, 女子勤勞者の 경우 SVC部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983年 「人口移動 特別調査」의 個人別 人口移動資料를 기초로 推定된 최근 人口移動率趨勢는 雇傭機會의 構造的 變化의 方向과 一致하고 있으며, 雇傭量보다는 賃金成長率에 보다 敏感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人口移動率은 觀察對象期間동안 雇傭機會의 構造的 變化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移動者들과 非移動者들의 經濟活動狀態와 產業別 構成을 보면, 移動者들이 經濟活動에 보다 积極的이며, 非農業部門에 相對的으로 많이 從事하고 있다. 特히 男子移動者들은 製造業部門, 女子移動者들은 SVC部門의 參與가 두드러 진다. 그러나 移動者들의 經濟活動狀態와 產業間

流動比率의 下向趨勢는 最近 들어 人口移動이 더 이상 積勞供給의 效率性을 增加시키는 重要要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結論은 단지 試圖的인 것에 不過하다. 왜냐하면 이 論文의 主要資料는 懶古調查에 의한 個人們의 過去移動史를 기초로 作成되었기 때문에, 記憶誤差 또는 應答誤差 等이 內在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20年 동안의 移動率趨勢推定에 使用된 標本의 크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標本이 實際의 人口構成을 代表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結論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廣範圍하고 代表性이 있는 セン서스등을 通해 集約的인 研究가 必要하다 하겠다.

參考文獻

- Choe, Ehn Hyun, et. al., "Preliminary Report of Korean National Migration Survey" in E. H. Choe et. al., ed.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1986.
- Jorgenson, Dale,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 Classical vs. Neo-Classical Models of Growth" and "Comments" in C. Wharton ed., *Subsistence Agri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Aldine, 1969.
- Lewis, W.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vol. 22, May, 1954.
- Ranis, G. and Fei, J. C. E.,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1961.
- Sjaastad, L.A., "The Cost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No.5, October, 1962.
- Suits, D.B., "U. S. Farm Migration : An Application of the Harris-Todaro Model",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3, No.4, July, 1985.
- Todaro, M.P.,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A survey" in R. A. Easterlin ed.,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NBER, 1980.

Abstract

Migration as a Factor of Labor Supply

Ehn-Hyun Choe* · Sung-Yeal Koo · Soo-Bong Kim*****

Migration is a redistribution process of human resources. With the flow moving toward where there are more and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migration raises the efficiency in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his paper aims to provide some basic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

- (1) what is the pattern of structural change(among industries) in employment opportunities in recent years?
- (2) how is migration related to these structural changes?
- (3) how significant is the role of migration as a factor of labor supply? According to the analysis, conclusion could be reached as the below ;

First, the structur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n non-agricultural sectors has been changing such that growth in the volume of employment has been decelerating since 1980 while the qualitative(wage increase) and structural aspect(more educated workers, more female workers) of it became more important. The tendency toward higher education was especially apparent in the manufacturing and SOC industries for the male workers while it was more so in SVC industries for the female workers.

Second, recent trend of migration is consistent to the directions of structural change in employment opportunities. Analysis showed that migration rate was more sensitive to the growth in wage than to that in employment.

Third, migrants are economically more active and employed relatively more in non-agricultural sectors. This seems to suggest that migr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 factor of labor supply. However, the downward trend in flow ratios of migrants' activity status and industry showed that over time, the role of migration became less significant in raising the efficiency of labor supply.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